

#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0개 조기 선정

### 전남도 사업 경쟁력 있는 마을 조기 추진 동력 확보 이달 말 최종 정해지면 다음달부터 사업진행 박차

구례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을 조기 선정하면서 선제적 추진에 나섰다.

군은 9일,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도가 배정할 50개 마을을 경쟁력 있는 마을로 선정해 조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읍·면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마을 이장 및 대표단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마을별로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군은 당초 타시군에 비해 마을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50개 마을을 배정받았지만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소통, 홍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배정마을 수보다 많은 55개 마을의 신청을 받았다.

군은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군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군 추진단장인 구례군 부군수를 중심으로 수차례 실무회의

를 거치며 사업의 틀을 다졌다. 군 담당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동시에 홍보를 독려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실적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쉽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군은 이번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군은 접수받은 55개 마을 중 전라남도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0개 마을을 최종 선



정해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이후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종 1,000개의 마을을 선정해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으뜸사업은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경쟁력 있는 대상 마을을 선정했다"며, "최종 선정 마을이 정해지면 4월부터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살고 싶은 청정 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

승용 최대 1520만 원  
화물 2320만 원 지원

담양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는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담양군은 그린뉴딜정책의 시행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3개년 전기자동차 보급률 3%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규모는 승용차 71대, 화물차 44대로 총 115대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으로, 지원금은 승용차는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20만원,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320만원을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총 지원의 10%는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되며 화물 차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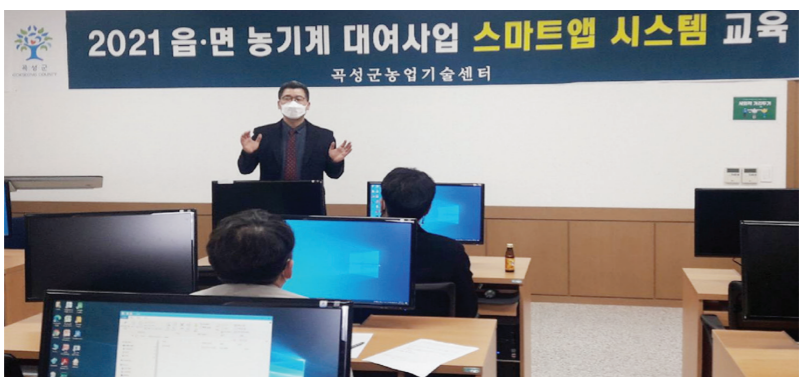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거나 이종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87)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스마트앱 활용 소형농업기계 대여 서비스 도입



현재 51종 496대 보유

곡성군이 스마트앱을 이용해 읍면 소형 농업기계 대여소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읍면 소형 농업기계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51종 4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곡성읍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

에서 농업기계를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앱을 활용한 농업기계 대여까지 가능해진다면 농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스마트앱에 농업기계현황을 입력하는 작업을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9일에는 읍면 소형농업기계 스마트앱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입력이 완료되고 4월 중 서비스가 운영되면 스마트앱을 통해 읍면 농업기계 전체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농가가 사용하고 싶은 농업기계를 핸드폰 앱을 활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읍면 소형농업기계 대여소의 스마트앱 운영과 함께 장비도 확충한다. 7천 8백여만 원의 사업비 투입해 농가의 활용도가 높은 딸기배지파쇄기 등 21종 48대의 농업기계를 읍면 대여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소형농업기계 대여소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체 실무역량강화교육 수강생 모집

내일까지 수강생 10명 모집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역량강화교육 '홍보실무자라면 A부터 Z까지 369(제목) 수강생 10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9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비대면 일상화 시대를 맞아 공동체 내부소통과 온라인 프로그램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화상회의', '홍보영상편집 및 업로드', '홈페이지 제작과정'으로 3월, 6월, 9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화상회의교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

상 교육 시스템으로 폭넓게 이용 중인 '줌(Zoom)' 등 원격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수강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참여(교육)신청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영 센터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체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가족 식탁에 '아버지 사랑과 손맛' 선물

아버지 요리반 40명 참여  
"가족들로부터 칭찬 받아"

화순군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총 5회에 걸쳐 비대면 아버지 요리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버지 요리반은 은퇴 세대와 맞벌이 가정 아버지들의 가사 부담이 높아지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건강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했다.

예초 교육 참가자를 20명까지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희망자가 많아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김진옥 생활 요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재료 계량법, 야채 손질법 등 생활요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더덕



밥, 목살 된장찌개, 새송이시금치나물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위주로 강의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을 동영상 학습 자료를 활용했다. 재료 꾸러미를 받아 학습한 후 실습 과정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생 박 모씨(화순읍)는 "강의에 집중하고 내 진도에 맞춰 동영상 자료를 반복 시청하면서 차근차근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새송이시금치 나물 무침 만드는 법은 냉이 무침에도 응용해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요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